

# 의심의 망대를 헐고 절대믿음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하박국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하박국 2:4, 로마서 3:10-24

정영돈 목사님

\* **할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롬3:10-24**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 누리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양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심본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축복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으로 응답과 해답을 얻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고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생령 걸 헌신을 해야 할 바른 이유와 방법을 찾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고, 나와 교회와 가문과 교단과 한국 교회에게 주신 실천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과 갈등과 질문과 불신앙,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진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질문과 의심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다. 불신자들은 주로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을 하게 된다. 즉,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 등이다. 그러면서 또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영이 알기 때 문이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왕 중의 왕이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계획과 지혜가 따로 있다. 우리가 작은 건물을 지을 때도 다 계획을 가지고 짓는다. 아무 것도 모르는 먼지보다 못한 우리는 인생을 주께 맡겨야겠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한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면 고민과 문제 밖에 없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곳이 없어 점지기도 하고 귀신한테도 물어본다. 청년들은 연애할 때 상대방과 잘될지 타로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귀신은 여러분을 돕다가 결정적일 때 망하게 만든다. 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광야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인이나 신자 대부분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 원망, 불평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다.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하는 건 좋은 질문이다. 오늘 나눌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류목사님이 정확한 문제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답을 얻으려 하기도 전에 막연한 고민과 갈등과 불평들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트에다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선택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제대로 질문했을 때 답을 주신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나훔서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의 나라를 없애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 나훔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적 앗수르에 대하여 보복할 것 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박국서는 당시 사단의 제국으로 왕성하게 성장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사실 이런 말씀도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원하는 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복음으로 원수도 변화시키는 게 높은 수준이다. 사실 여기 나오는 하박국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여유가 생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다. 이런 의미를 나훔과 하박국이 깨달았다. 우리는 인간인이라 괴롭히면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쓸데없는 데에 갈등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강대국에게 고통 받을수록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안과 밖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다. 답과 해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응답을 받은 것이다. 1, 2, 3장으로 짧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과 갈등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결국 여러 가지 말씀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린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최고의 믿음의 과수망대를 세운 70인 제자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천국이 보인다. 미래의 승리가 보인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게 보인다. 그 보이는 방법이 기도고, 성령충만함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장에 인인 분들에게 아무리 빨간색이 뭔지 설명해도 알 수 없다. 유명한 철학자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철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이성’이다. 칸트도 이성의 한계로서의 종교를 이야기했다.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파란색과 노란색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봐야 한다. 보는 방법이 뭐가? 색도 빛이 있으면 보인다. 성령충만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237 빛으로 볼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써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는 나의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 하박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약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기준이 깨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다. 오직 내가 나뉜 것은 믿음 때문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다.

## 1. 하박국의 의문의 망대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와 질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난무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하박국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곱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따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이니이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하박국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어떨까? 박애주의, 율법주의다. ‘나는 악하지 않은데 백성들은 악하고 나는 정의로운데 저들은 정의롭지 않다는 사상이 깔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강포와 분쟁을 행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복음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변증하신다.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악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2)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 보기에 맞는 말 같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겠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저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냐

고 물어보신다. 1장 17절에 보면 “그(바벨론)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항의를 한다. 애들이 싸울 때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 욕만 한다. 옳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자기가 낫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짜증난다. 바르고 옳고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비판하면 그게 바르고 옳고 착하게 사는 것일까? 아니다. 사랑해야 한다. 정말로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르게 되기를 바랐다면 바벨론에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고자질만 하고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 형제가 서로 감싸주고 대변해야 서로 고자질하면 오히려 한 대 더 때려주고 싶다. 이 질문과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명백한 답변과 편집, 설계, 디자인 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박국서 2장 2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마음에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땅에서 왕같이 살아가도 지옥가면 끝이다. 우리는 성공하고 천천히 성령인도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편집, 설계와 디자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믿음의 땅대를 세워야 하겠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다. 저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는지, 믿음으로 가는지 얼굴만 보면 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다.

## 2. 하박국이 깨달은 복음과 믿음에 당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복음과 진리의 땅대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다. 믿음 없으면 영혼은 죽는다. 삶과 사업도 죽는다. 믿음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미래도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 번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앞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박국 2장 4절의 앞부분의 말씀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만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실 하박국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만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함축에 가서 모여 있는 애들 열 명 정도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고 전도하니까 한 꼬마가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제일 착하냐?’ 물어봤을 때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착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 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는 본인이 정말 착한지 안다. 착한 사람은 없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절대 진리의 땅대를 발견하였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 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의인의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이다. 이 내용이 바로 절대 진리의 땅대, 구원의 땅대다.

(2)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37년과 5천 종족 선교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 민족복음화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세워주실 줄 믿는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주역이 여러분일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70명대를 향해 도전해야 하겠다. 저는 Heavenly Talent를 두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 현장은 항상 현장에 그대로 있다. 이번에 윈드서핑을 하러 갔더니 무당 되려고 준비했던 사장님이 계시더라.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3)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이 생사회복의 주관자 이심을 믿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든 조급하게 의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질문하거나 투덜거리거나 갈등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겠다. 어떤 분들은 말로는 조용한 것 같았는데 생각이 시끄러운 분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란다.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 때문에 말씀을 거를 때가 많다. 자주 말씀을 거르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야 한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보면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잠잠하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보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속으로 꿩꿩이를 가지고 잠잠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속으로 다 알지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잠잠한 사람이 있다.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잠잠한 게 아니다. 살리는 지혜의 말을 해야 한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야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고 오직 예배에 성공하면서 강단말씀만 붙잡았다. 그 결과 3장에 보면 오직 믿음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주신다. 이 질문과 항의가 사실은 기도다. 원망을 할 때도 마지막에 ‘하나님’ 붙이면 기도가 된다. 사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란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진실하게 기도로 쏟아놓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을 통하여 자신의 절대 믿음을 시로 고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절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이게 바로 그토록 말씀드린 초특급 믿음이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지만 나중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주신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감사하면 누구든지 좋아한다.

결론이다.

①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성령의 역사로 참믿음의 땅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모든 의문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각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긴다.

②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육신적인 것 밖에 모르는 237년과 5천 종족들과 TCK와 다문화 가족들에게 참 믿음과 참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교현장에 가면 99%의 사람들이 뭔가 먹으려고 온다. 그러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배신하고 간다. 그런데 필리핀에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제자는 이익이 없어도 전도하더라. 그들이 깨달으면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③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갈등을 두고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본인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고민 안할 수 있을까?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라. 그게 기도다.

④ Image. 이미지도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형상을 갖게 되었고 에덴의 축복 이상을 약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 앞에서 깊은 호호와 함께 강단말씀을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절대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실현이다. 기도를 통해 Heavenly Power를 받아 Heavenly Talent를 발견하고 Heavenly Mission에 조금만 도전해도 70명대가 세워져 나갈 것이다.

말씀운동, 기조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나의 70명대를 세팅하여 일천만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최고의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의 땅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자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